

■ 語文論文

# ‘이다’를 機能動詞로 分析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陸 正 洙

(서울市立大 教授)

## 要約 및 抄錄

本稿는 省略, 口蓋音化, 格割當의 문제에 대한 再檢討를 통해 ‘이다’를 機能動詞로 統合하고 있는 목정수(2006나)의 後續篇으로서, 否定法 논의와 副詞 修飾 논의를 통해 다시 한 번 論旨을 補強한다. ‘아니다’의 內部構造를 ‘안+이다’와 ‘아니+이다’로 分析할 수 있음을 言語直觀과 歷史的 資料를 통해 論證하고, 共時的으로 ‘아니다’를 ‘안+이다’로 分析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국어의 否定法 形成의 일반적 기제가 ‘아니다’에 作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다’ 構成에서 程度副詞의 修飾關係가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用言을 수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다’의 제2보어 자리를 차지하는 명사구—N1—가 限定助詞 ‘가, 를, 도, 는, 의’의 制約과 관련하여 意味의 解釋이 內包的 屬性, 즉 形容詞의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도부사는 바로 이 形容詞의 單位의 속성을 꾸며주는 것이다. 결국, ‘이다’는 통사적 단위의 存在로서 기능동사로 再闡明된다.

※ 핵심어 : 格割當, 冠詞, 機能動詞, 否定法, 程度副詞, 主格助詞, 接辭, 限定助詞

## I. 序 論

본고의 目的은 ‘이다’의 ‘이’를 접사도 아니고 주격조사도 아니며, 用言(=機能動詞)으로 봐야 하는 결정적 證據를 몇 가지 제시하는 데 있다.<sup>1)</sup> ‘이다’와

1) ‘이다’를 기능동사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解明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목정수(2006나)의 속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서 論究한 것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지면의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혼

관련된 논의는 이미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더 이상의 새로운 學說이 나오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 목정수(2006나)에서는 ‘이다’를 둘러싸고 제기된 대표적인 주장을 용언설, 접사설, 주격조사설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立場이 근거하고 있는 논거들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上位meta的 시각에서 재삼 검토하여 ‘機能動詞’로 보는 것이 이다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의 全般을 아우를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아니다’의 內的構造를 共時的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否定法negation 형성의 機制mechanism가 고스란히 ‘아니다’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다’의 正體가 用言(=機能動詞)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副詞修飾의 문제를 통해, ‘이다’가 統辭的單位로 기능함을 밝혀 ‘이다’는 機能動詞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자 한다.

## II. ‘아니다’에 대한 分析: 한 +이다인가 ‘아니+이다’인가?

‘아니다’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든지 간에 임홍빈(2005)와 시정곤(2005)의 논의에서는 모두 ‘이다’와 ‘아니다’의 相關性을 문제 삼고 있고, 이들의 관련성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있다. 시정곤(2005:73)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다의 통사적 성격과 의미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다’와 ‘아니다’ 구문을 동등하게 놓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전적으로 同意한다. 그러나 위의 임홍빈(2005)에서 언급된 목정수(2003)에 대한 비판 부분, 즉 “아니다를 형용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고

---

히 있을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문제와 관련하여 ‘이다’를 한국어에서 동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형용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기능)동사로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관형사, 관계절 등의 통상적인/일반적인 국어학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각주와 본문 곳곳에 간략히 해명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목정수(2006나)와 그의 선행 연구의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넘어가야겠다. 중요한 것은 목정수(2003)은 ‘이<sub>다</sub>’와 ‘아니<sub>다</sub>’를 평행한 차원에서 肯定文과 否定文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sub>다</sub>’를 機能動詞로 보는 것이라면, ‘아니<sub>다</sub>’는 그의 否定形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니<sub>다</sub>’도 자연스럽게 부정의 機能動詞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전통적인 品詞 구분에 따라 ‘이<sub>다</sub>’를 ‘기능형용사’라 했다면, ‘아니<sub>다</sub>’는 자동적으로 否定의 ‘기능형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sub>다</sub>’와 ‘아니<sub>다</sub>’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肯定文과 否定文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 전통적인 동사-형용사의 구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sup>2)</sup>

- (1) 가. 가다 - 안 가다  
나. 먹다 - 안 먹다  
다. 예쁘다 - 안 예쁘다<sup>3)</sup>

2) 이선웅(2000)에서는 어휘화된 ‘아니<sub>다</sub>’를 共時的으로 ‘아니+이<sub>다</sub>’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황화상(2005)에서는 ‘아니<sub>다</sub>’ 구문이 부정극어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아니<sub>다</sub>’는 共時的으로도 ‘아니+이<sub>다</sub>’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共時的인 차원에서 ‘안+이<sub>다</sub>’로 분석해야 ‘아니<sub>다</sub>’의 동사와 의미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니+이<sub>다</sub>’ 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이<sub>다</sub> > 아니<sub>다</sub>’와 ‘안+이<sub>다</sub> > 아니<sub>다</sub>’는 별개로 파악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김의수(2002)도 본고와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3) 한국어의 소위 短形 否定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이 있다. 먼저, ‘안’을 ‘아니’의 준말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共時的으로 볼 때, 현대국어에서 ‘안’과 ‘아니’는 단순한 준말-본디말의 관계가 아니라 그 문제적 의미 차이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는 별개의 形態素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기문·임홍빈 감수 『동아참 국어사전』에서는 단형 부정사 ‘안’이 형용사—본고의 용어로는 기술동사 또는 주관동사—와 결합이 자연스럽게 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현대국어에서 형용사의 경우도 단형 부정이 일반적이다. 뒤에 가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부정 부사 ‘아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와의 결합이 안 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듯하고—한국어통사론연구회 발표(2006. 11. 11. 고려대 국제관)에서 유현경 교수(연세대) 등의 지적이 실제 있었고, 이용 선생(서울시립대)도 私談에서 이런 지적을 한 바 있 다—, 이로 인하여 ‘아니 이다’가 이상하다고 여겨진다는 견해가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다음 예들을 보자.

- (1) 밧이 멀리서 찾아 주니 어찌 아니 기쁠쏜가?

라. 춥다 - 안 춥다<sup>4)</sup>

(2) 가. 하다 - 안 하다

나. 이다 - 안 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성에 대한 우순조(2005)의 논의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임홍빈(2005)으로 돌리되, 거기서 분명히 언급되지 않은 ‘이다’와 ‘아니다’의 相關關係 속에서 ‘아니다’를 어떻게 分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바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을 온전히 說明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強調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이다’ 관련 논의에서 積極적으로 제기되고 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아니다’를 ‘안+이다’로 分析하든, ‘아니+(이)다’로 分析하든 중요한 점은 여기에 문제의 ‘이다’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sup>5)</sup> 따라서 부정부사 ‘안’ 또는 ‘아니가’ ‘이다’에 첨가/부가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다’와 ‘아니다’ 구문은 기본적으로 같은 統辭構造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인 발화체의 ‘아니다’ 구문에서 우리가 言語直感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정부사 ‘아니가 아니라’ ‘안’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여 지적하고자 한다.<sup>6)</sup> 다음을 비교해 보면 된다.

(3) 가. 그 안건을 상정(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나. 그 안건을 상정(을) 아니 시키면 어쩍니까?

‘아니다’를 共時的인 시각에서 보면 두 가지 重義的인 구조로 分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sup>7)</sup>

(2) 아니 슬프도다.

4) 『표준국어대사전』의 한 예이다.

5) 김정대(2006)이 많은 참조가 된다.

6)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아니다’를 ‘아니+이다’로 분석하고 있고, 본고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답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니다’를 ‘안+이다’로 분석 가능하다는 논의가 立證된다면 이 문제는 문제 자체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機能動詞로서의 ‘이다’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격조사나 (통사적/어휘적)접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논거가 된다는 말이다.

- (4) 가. 안 + 이다 → 아니다<sup>8)</sup>  
 나. 아니 + 이다 → 아니다

(4가)는 ‘이다’에 단순히 부정부사 ‘안’이 붙어 連音되어 ‘아니다’가 된 것이고, (4나)는 부정부사 ‘아니’에 ‘이다’가 결합한 것이 母音의 환경에서 ‘이’가 탈락되어 導出된 결과이다. 우리가 提起하고자 하는 문제는 후자의 경우라면, ‘이’가 탈락되어 도출된 결과로 ‘아니다’가 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부정부사 ‘아니’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5가)처럼 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5) 가. 저는 학생(이) 아니(이)웁니다. → 아니(이)웁니다  
 나. 저는 학생(이) 안이웁니다. → 아니웁니다

‘아니다’ 자체에서 현대국어의 共時的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 古語的이랄까 文語的이랄까 할 수 있는 부정부사 ‘아니’의 文體的 意味가 산출될 수 있으려면, ‘아니(이)다’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말맛이 살아난다고 본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古語투의 문체적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아니다’는 ‘안+이다’로 分析되는 것이 妥當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아니다’에 대해 ‘아니(이)다’가 縮約된 것과 ‘안이다’가 ‘아니다’로 연음된 것은 다른 것으로 봐야

7) 通時的으로 ‘아니’만 존재했던 시기에 비해, 현 시기는 ‘아니’와 ‘안’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아니다’에서 ‘아니’와 ‘안’을 분석해 내는 것은 둘 다 가능하다. 다만, 그 차이가 의미와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8) 현재의 表記法이 확정되기 이전의 혼란기에 한 문인이 보여주는 일관된 표기를 당대 국어문법 의식을 대표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아니다’의 내적 구조를 ‘안+이다’로 再構成하는 데 작은 방증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한 심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소월(1925. 5.), 『詩魂』, 〈개벽〉 59호, 문예면 p.11., “(……) 여러분, 그 버려지 한 마리가 오히려 더 만히 우리 사람의 情操답지 안으며 난들에 말라 벌바람에 여위는 갈매 하나가 오히려 아직도 더 갓갓은, 우리 사람의 無常과 變轉을 설위하여 주는 살뜰한 노래의 동무가 안이며, 저 넓고 아득한 난바다의 췌노는 물결들이 오히려 더 조흔, 우리사람의 자유를 사랑한다는 啓示가 안입넛가.”

할 것이고, 이는 현대국어의 共時的 直觀에 잘 부합한다. 다음 두 쌍의 문장에서 '否定'과 연관되는 의미차를 생각해 보라.

(6) 가. 서방님, 그러시면 아니 되웁니다.  
나. 서방님, 그러시면 안 되웁니다.

(7) 가. 야, 너 그러면 아니 된다, 알았니?  
나.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이다'처럼 母音으로 시작되는 동사를 통해 連音 현상을 들여다보면, '아니 다'가 [안+이다]로 分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確認할 수 있다.<sup>9)</sup>

(8) 가. 옷도 안 입고 어딜 돌아다니느냐?  
나. 옷도 아니 입고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 9) 한 심사자께서 '아니다'를 共時的으로 '안+이다'로도 분석 가능하다는 본고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안 먹는다"는 '안 즐겨 먹는다'와 같이 부사적인 요소가 안과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안+이다' 사이에는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다. 공시적으로 '아니다'가 '안+이다'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적극적인 증거가 찾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해 주셨다. 필자는 현재로서 이 인용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하지 못했다. 지적에 감사하면서, 이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안+이다' 또는 '아니+이다'로의 분석 가능성을 통해서 '이다'의 정체성을 機能動詞로 확정짓고자 한 본고의 의도가, 심사자의 지적처럼 '안+이다' 분석의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한다면 논의의 객관성과 더불어 상당히 훼손될 것임은 논리적으로 분명하다. 또한 재심사 과정에서 다시 심사자가 지적한 바—'아니다'를 '안+이다'와 '아니+이다'로 분석하는 것이 어느 것을 취하든 '이다'가 용언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아니다'를 '아니+이다'가 아니라 '안+이다'라고 해야만 '이다'가 기능동사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밑줄은 필자가 칩)—와는 달리, 본고에서는 '아니+이다' 분석을 부정한 적이 없으며, 文體的 意味를 적극 고려하여 '아니다'를 공시적으로 '안+이다'로 분석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이다'가 용언(=기능동사)임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아니+이다' 구성 자체도 '이다'가 용언(=기능동사)임을 증거한다. 단, '아니'가 부정부사이고 명사가 아니라는 선에서 그렇다. 각주 (10)을 참조하기 바란다.

(8가)는 [아(:)넙꼬]로 連音되어 발음될 수 있고, (8나)는 [아니넙꼬]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母音縮約에 의해 [아넙꼬] 또는 [아넙:꼬]로 발음될 수도 있다. 그러나 (8나)의 경우, 부정부사 '아니'의 의미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니넙꼬]로 발음하게 되는 傾向이 강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니다]의 발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分析해 내게 되는 것은 부정 '안'이며, 부정 '아니'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니이다]/[아니:다]로 해야 하는 것이다.

以上の 논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反論이 예상된다. 하나는 '아니 이다' 자체가 수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共時的인 입장에서 '아니다'가 '안 이다'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단형 부정사 '안'이 도입되기 이전에 '아니(이)다'가 '아니다'로 語彙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sup>10)</sup> 우리의 對應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共時的으로 용언의 부정 표현으로는 동사(=행위 동사)나 형용사(=기술동사, 주관동사)의 下位分類에 상관없이 단형 부정이

- 10) '아니(이)다'에서의 '아니'를 중세국어에서 '아니'가 부사가 아니라 명사였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부사+이다' 구성이 아니라 '부정명사+이다' 즉 이중주어 구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안병희(1959), 고창수(2007:54)). 이현희(1994)와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에 제시된 중세국어 '아니'의 명사적 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모든 사물 아니는 얼굴 잇느니와 ... 想 업스니를 ㄱㄹ치시니 (『능엄경언해』 6:22)
  - (2) 이 둘히 둘 아니를 일후미 空相이라 (『심경』 38)
  - (3) 法의 제 性이 아로미 드와느너 아로미 아니가 (『능엄경언해』 3:33)
  - (4) 갖ㄱ로모로 諸法 有無와 이 實이며 實 아니와 이 생이며 생 아니를 고히느니 (『법화』 5:30)
  - (5) 숲가락 아닌 거스로 숲가락 가줄비듯 ㅎ야 (『능엄경언해』 2:61)
- 그러나 필자는 중세국어의 '아니'의 명사적 용법은 주로 언해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이외의 '아니'는 대개 부정부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에 조사 '는, 를' 등의 조사가 붙었다고 이를 명사로 보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 이들 조사는 부사어에도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 빨리를, 도무지가, 실제로는, 너무도 ...
- (6) 머자 외야자 緣李야 빨리 나 내 신고홀 ㅁ야라 ... 아니옷 ㅁ시면 나리어다 머즌 말 (『약학-초』 5:13. 처용가)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指摘해야겠다.

(9) 가.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나.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다. 숙제도 아니 한 채 잠자리에 들다니!

(10) 가. 어찌 아니 기쁘다 할 것인가?

나. 이 어이 아니 슬픈가?<sup>11)</sup>

따라서, '이<sub>다</sub>'는 형용사성 때문에 '아니'와의 결합이 制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와 '이<sub>다</sub>'는 통사적 결합이 構造的으로 許容된다.

두 번째 문제는 단형 부정사 '한'의 출현이 19세기 말에 와서야 文證이 되고 있고,<sup>12)</sup> 중세국어 자료에서도 '아니'와 '이<sub>다</sub>'의 연쇄형이 文獻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思料된다. 다만, 어휘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共時的으로 '아니<sub>다</sub>'에서 도출되는 의미는 부정사 '아니'가 아니고 '한'이라는 점과<sup>13)</sup> 고대국어 자료인 釋讀口訣에 명사 부정문

11) 중세국어에서도 '아니'는 소위 형용사 앞에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나타난다. 몇몇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그 말 드르샤 밋딴 스시예 아니 한 고기를 어더 세 기제 논호아 (『月釋』 20:112b)

(2) 또 아니 한 스시예 臣下들히 議論호디 (『月釋』 22:29a)

12) 이지영(2004, 2005) 참조. 부정부사 '한'은 18세기 후반에도 나타난다. “직조 빅호고 能히 말 못호면 錦繡를 안 믿들며 蘭草를 우물에 심으기에서 다름이 업스니라” (1790 『첩해몽어』 1:15). 이는 함희진 선생(고려대)이 알려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

13) 한 심사자께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해 주셨다. “II장에서 '아니다'를 '아니+이<sub>다</sub>'가 아닌 '안+이<sub>다</sub>'로 分析한 유일한 근거는 사실상 고어체의 의미 유무에 있다. 그러나 '아니다'가 '아니+이<sub>다</sub>'가 어휘화된 것이라 해도, 그 의미가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古語的인 意味를 보여야 할 이유는 없다. 어휘화 후에 그 원 구조에서 벗어나 의미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본고에서 '아니(이)다'가 '아니'의 고어체 의미를 유지하는 선에서 縮約에 의한 '아니다' 도출은 인정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심사자께서 언급하신 바처럼, '아니이다'가 '아니다'로 어휘화된 후에 그 원의 즉, '아니'의 고어적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



에서 [명사 + 부정사 안디 + 이(1)]의 형식이 나타난다는 점<sup>14)</sup> 등에 의지하여 중세국어에서도 ‘아니+이다’의 구성이 구조적으로는 허용 가능했던 것으로 推定하고자 한다. 이 ‘아니+이다’는 현대국어에서도 가능한 구조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현대국어에서는 부정사 ‘아니’가 19世紀 末에 와서 출현한 신형의 부정사 ‘안’과의 對立 關係에서 그 의미가 고어체로 잊힌다는 점이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니다’가 ‘아니+이다’ 구조에서 再構造化되어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니’의 古語套 또는 擬古體의 의미가 유지되는 선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共時的으로 ‘아니’의 고어적인 문체적 의미가 잊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기에 부정부사 ‘안’이 介入한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아니다’의 어휘에는 분명 부정부사 ‘안’이 숨어 있음을 否認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안+이다’가 ‘아니다’의 실체라는 점은 타당한 것이고, 부정부사 ‘안’과 직접 결합하고 있는 ‘이다’는 동사적 차원의 어휘요소 즉, 機能動詞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 Ⅲ. ‘이다’ 構成과 副詞 修飾

다음 두 문장에서 修飾 成分의 관계는 복잡한 문제를 惹起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잘 마련하면, ‘이다’ 구성을 어떻게 把握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11) 무슨 걱정이냐?<sup>15)</sup>

우나, 공시적으로 그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아니다’와 그 의고체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아니(이)다’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 의고체 의미가 없는 ‘아니다’는 공시적으로 ‘안이다’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더 蓋然性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 14) 박진호(1998:143~145), 이용(2003:252~253)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한 심사자는 ‘안디’를 ‘아니’의 직접 선대 대응형으로 상정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고 지적하시면서, 用言 否定에 나타나는 ‘안들’ 형태를 근거로 ‘안디’는 ‘안+디’ 또는 ‘아니+디’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주셨다. 본고에서는 명사 부정문만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과 ‘안디’에 대한 다른 분석 가능성 여부는 본고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同學들의 더 세밀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2) 아주 미인이다.

(11)에서는 ‘무슨’이라는 ‘관형사<sup>16)</sup> 修飾이 이루어지고 있고, (12)에서는 ‘아주’라는 부사 修飾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일견 모순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황화상(1996, 2005)는 동사적 접사 ‘아’가 어휘부에서 선행어간의 핵이동을 통하여 결합되어 어휘를 구성하게 되고, 이 결합체는 [+N, +V] 資質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1)의 ‘관형사’ 수식은 명사적 자질 때문에 가능하고, 서술어 기능은 동사적 자질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웅(2000)과 더불어 시정곤(2005:61)에서는 동사적 자질을 갖고 있다면 副詞의 수식도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시한 예가 다음 (13)이다.

(13) \*철수는 훌륭히 학생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부사 수식 가능성을 언급할 때 사용한 예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즉, (13)의 예에서 ‘훌륭히’는 기본적으로 ‘학생이다’와 어울

15) 이는 ‘X-하다’ 구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1) 무슨 소리하는 거야?

(2) 무슨 공부하니?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X-하다’나 ‘X-이다’ 구성이 일차적으로 동사적 단위의 결합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16) 목정수(2003)의 品詞 體系에 따르면, 관형사 ‘무슨’은 ‘형용사 범주로 통합된다. ‘X-적’ 단위를 예로 들어 설명을 베풀어 보자. ‘X-적’ 단위에 대해 전통적으로 명사와 관형사로 분리하거나 품사 통용으로 기술해 온 것이 사실이나(서태룡(2006)), 본고에서는 그 단위의 형태·동사적 행태를 기준으로 ‘형용사’로 통합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추상적 개념’과 ‘개념이 추상적이다’에서 ‘추상적’이 異質의인 것으로 나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이러한 환경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형용사’—양보하여 ‘형용사성 명사’—의 지위를 갖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즉, 前者는 형용사 ‘추상적’의 수식적 용법이고, 後者는 형용사 ‘추상적’의 서술적 용법인 것이다. 앞으로 본고에서 특별히 ‘형용사’라고 표기한 것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예쁘다’, ‘춥다’ 등의 형용사는 기술동사나 주관동사로 재분류된다(목정수(2003, 2006가)). 이에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사 ‘먹다’ 등의 행위동사와도 修飾 關係를 形成할 수 없는 것이다.

(14) 가. \*철수는 훌륭히 먹었다.

나. \*철수는 훌륭히 논다.

‘이다’ 구성에서 부사의 수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엄청’, ‘짱’, ‘되게’ 등의 程度副詞degree adverb에 의한 것으로 制限된다. 거꾸로 이러한 정도부사는 [+행위성] 資質의 동사와는 결합되기 힘들다(박소영(2003) 참조).

(15) 가. 철수는 아주 부자이다.

나. 철수는 굉장히 천재이다.

다. 철수는 정말 학생이다.

라. 철수는 완전 백수이다.

(16) 가. ??철수는 아주 \*(많이) 먹는다.

나. ??철수는 굉장히 \*(잘) 노래한다.

따라서, ‘철수는 훌륭한 학생이다’에 대해 ‘\*철수는 훌륭히 학생이다’가 안 되는 것은 意味的 衝突의 문제이지, 統辭的 地位에 따른 結合 制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와 ‘Y-이다’가 결합할 수 있는 현상과, ‘아니다’ 구성에서도 이러한 결합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副詞는 용언(동사/형용사)을 꾸며주는 것으로 본다면, [[아주] [부자-가/는/도 아니다]]에서 [부자가/는/도 아니다]를 語彙部에서든 統辭部에서든 어휘화된 lexicalized 것으로 봐야 하거나 ‘아주’가 [부자가/는/도 아니다]라는 VP를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정도부사의 수식 범위 scope를 고려하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up>17)</sup>

17) 한 심사자께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셨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부사는 ‘단어’ 수식(주로 용언)뿐만 아니라 ‘구’나

본고는 이와 달리, ‘아주’ 같은 정도부사는 용언으로서의 형용사 즉, ‘동사성 형용사 verb-like adjective’뿐만 아니라 屬性이나 狀態를 나타내는 명사, 즉 ‘명사성 형용사 noun-like adjective’를 꾸며 줄 수 있는 것이고, ‘Y-이다’ 구성에서 ‘Y’ 자리에 오는 명사는 ‘속성적 의미’ 즉 程度를 구분할 수 있는 gradable 의미, 즉 ‘형용사’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와 결합이 되는 것으로 본다.<sup>18)</sup> 즉, ‘아주’는 ‘Y-이다’ 구성에서 ‘Y’를 수식하는 것이지, ‘Y-이다’ 전체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9)</sup> 그래

‘문장’ 수식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부자가 아니다’가 굳이 어휘화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사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아주’가 ‘부자’를 수식하느냐 ‘부자가 아니다’를 수식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구나 절·문장 차원의 부사 수식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주어졌으나, 첨언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成分副詞이고 그 가운데서도 程度副詞의 문제로서 그 수식 가능성과 수식 범위의 문제를 통해서 ‘Y-이다’, ‘Y(가) 아니다’의 통사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사 수식 전반에 관한 논의를 세밀하게 다 다루지는 못했다는 지적은 옳다.

- 18) 용어 ‘명사성 형용사’ 등에 대해서는 각주 (16)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소영(2003:51)에서는 ‘아주 바닥이다’, ‘아주 최고(이)다’ 등의 예를 통하여,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 수식되는 것은 외연적인 ‘실체’가 아니라 내포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거의/아주 바닥이라고 했을 때, ‘바닥’은 실제적인 바닥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땀 밑’이라는 의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내포적인 의미 속성이 부사에 의해 한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사의 意味資質로 부사 수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본고의 논의와 相通하지만, 본고에서는 명사 자체의 의미자질 뿐만 아니라 意味解釋에 있어서 ‘Y-이다’ 구성 내에서의 ‘Y’의 실현 양식, 즉 ‘Y-( $\phi_1$ )-( $\phi_2$ )’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19) 목정수(1998, 2006나)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다’ 구성 [N0- $\phi_1$ - $\phi_2$ /가/는/도 N1- $\phi_1$ - $\phi_2$  이다]에서 정도부사는 [ [N1- $\phi_1$ ]- $\phi_2$  ]의 끊은표시 부분과 수식관계를 맺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 각주 (18)과 후술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 독자의 誤解를 줄이기 위해서 영형태 ‘ $\phi_1$ ’, ‘ $\phi_2$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 $\phi_1$ ’는 격조사 또는 후치사 {예, 로, 와} 등과 구조적으로 대립하는 영형태이고, ‘ $\phi_2$ ’는 한정조사/후치관사 {가, 를, 도, 는, 의}와 구조적으로 대립하는 영형태이다.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라며, ‘이다’ 구성의 제약현상의 핵심은 격조사나 다른 조사가 아닌 바로 유표적 한정조사 {가, 를, 도, 는, 의}가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強調하고자 한다.

야 'Y-가 아니다'에서도 '아주'가 'Y-이다'와 平行하게 유지되는 것을 自然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17) 가. 영화는 아주 예쁘다.

나. 영화는 아주 예쁘지는 않다.

(18) 가. 영화는 피아니스트로 아주 유명 (하다).

나. 영화는 피아니스트로 아주 유명은 (안) 하다.

(19) 가. 영화는 아주 관념적이다.

나. 영화는 아주 관념적은 아니다.

(20) 가. 영화는 아주 부자이다.<sup>20)</sup>

나. 영화는 아주 부자는 아니다.

그러면, 부사는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區分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부사는 명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명사를 수식하는 예외적 존재로서의 부사, 즉 '명사 수식 부사'를 따로 設定할 필요가 없어지는 長點이 있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정수(1998, 2006나)에서 '이다' 구성을 구조적으로 표시한 다음을 참조하고자 한다.

(21) '이다'의 구성의 기본 구조

$[N0-\Phi_1-(\Phi_2/\text{가}/\text{는}/\text{도})\ N1-\Phi_1-\Phi_2\text{-이다}]$

우리는 위의 구성에서 정도부사 아주는  $[[N1-\Phi_1]-\Phi_2]$ 의 굵은표시 부분과 수식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에 비해 관형사나 관형사절은  $[[N1-\Phi_1]-\Phi_2]$ 의 굵은표시 부분과 수식관계를 맺는 것으로 본다. 이는 관형

20) [부자이다]에서 '부자'는 '이다' 구성에서 述語predicate 자리에 나타나는데, 그의 의미해석에 따르면, 개체 명사인 'a rich man'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속성 형용사인 'rich'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각주 (18) 참조).

사와 명사의 걸림관계incidence, 부사와 非명사-용언(동사(= 행위동사), 형용사(= 기술동사, 주관동사))과 부사-의 걸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관형사는 명사 자체와 수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명사에 붙는 文法 要素들은 바로 이러한 구성 즉, NP 구성 [관형사+명사] 자체에 膠着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의 예에서 격조사 '로'는 '내가 먹은 사과' 전체에 膠着되는 것이고 한정조사 '는'은 다시 그 전체 '내가 먹은 사과로'에 교착되는 것이다.

(22) [내가 먹은 사과]-로 는

그에 비해  $[(N1-\Phi_1)-\Phi_2]$ 에서 굵은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명사가 문장의 成分으로서 實現된 단계-랑그랑 language에서 담화 discours 층위로-를 나타낸다. 이는 '도끼-로'나 '철학적-으로', '공원-에서'나 '선생님-과(함께)'처럼 부사어 성분과 實現 層位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層位에서 실현된 성분- $[N1-\Phi_1]$ -은 의미적 만남이 허용되는 조건하에서 관형사가 아닌 副詞의 修飾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형사/관형사절은 用言과 결합할 수 없고, 부사는 體言과 결합할 수 없다는 一般 統辭 原理를 유지하면서도, 표면적으로 명사 앞에 선행하는 부사와의 관련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21)</sup>

(23) 관형사절(=형용사절)의 명사 수식

가. 어려운 춤 ↔ \*어려운 추다

나. 힘이 든 놀이 ↔ \*힘이 든 놀다

(24) 관형사(=형용사)의 명사 수식

21) 한 심사자는 “부사는 N1의 의미를 수식하는데 왜 그 단위는 $[N1-(\Phi_1)]$ 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습니다.”라는 지적을 하셨다. 이에 대해 필자는 程度副詞와 名詞의 의미 수식 관계와 정도부사와 명사의 결합 제약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N1-\Phi_1]$ 과 같은 構造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첨언하고자 한다. 예 (27)에서 제시한 통사 구조가 의미하는 바와 각주 (22)의 속뜻을 참조할 수 있겠다.

가. 새 신발 ↔ \*새 신다  
나. 온갖 놀이 ↔ \*온갖 놀다

(25) 부사의 형용사(=어근 또는 어근명사) 수식

가. 꽤 유명(하다) ↔ \*꽤 명소  
나. 엄청 관념적(이다) ↔ \*엄청 관념  
나. 아주 부자(이다) ↔ \*아주 책상

(26) 부사의 용언 수식

가. 아주 깊다  
나. 아주 아름답다  
다. 아주 기름지다

따라서 목정수(2003:128)에서 試驗的으로 제시했듯이, '굉장한 부자이다'와 '굉장히 부자이다'의 통사적 구조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sup>22)</sup>

(27) 가. [[[굉장한 부자]- $\Phi_1$ ]- $\Phi_2$ ]-이다  
나. [[굉장히 부자- $\Phi_1$ ]- $\Phi_2$ ]-이다

정도부사는 후행하는 述語 위치에 나타나는 補語 라는 성분과 통사적 결합 관계에 놓인다는 것, 즉 보어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 자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N1- $\Phi_1$ ]- $\Phi_2$ ]]에서처럼 통사적 기능을 획득한 단계에서의 [N1- $\Phi_1$ ] 성분과 결합된다는 것은 보어 성분을 요구하는 '되다' 동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국어에서 동사 '되다'의 제2 보어에 나타나는 論項

22) '굉장히'라는 정도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부자이다'를 用言으로 처리해야 하고 '부자이다'를 명사 '부자'가 派生接辭 '이'에 의해 용언으로 파생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한 부자이다'의 '이다'와 '굉장히 부자이다'의 '이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통사적 구성의 '부자이다'와 어휘차원의 '부자이다'로 나누는 것의 끝이 어디인가를 예상/고려할 때, 이러한 처리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은 일반적으로  $[(N1-\Phi_1)-\Phi_2/\text{가}/\text{도}/\text{는}]$ 으로 나타난다.

- (28) 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나. 철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다. 저, 빈자는 결코 되고 싶지 않아요.

한편, 北韓이나 연변 지역에서는 ‘되다’의 제2보어가  $[(N1-\text{로})-(\Phi_2/\text{가}/\text{도}/\text{는})]$ 으로도 실현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실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다.<sup>23)</sup>

- (29) 가. 철수는 부자로 되었다.  
       나. 물이 얼음으로 되려면, 기온이 얼마나 내려가야 하나요?  
       다. 너 같이 해서는 대통령으로는 되기 힘들 거야.

(29가)의 경우에, 정도부사 ‘아주’ 수식이 가능한데, 이 때 ‘아주’는 ‘부자’라는 명사 자체가 아니라 ‘부자로’라는 補語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가 동사 ‘되다’를 수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정도부사 ‘아주’는 ‘부자로’라는 성분과 수식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24)</sup>

23) 文語에서뿐만 아니라 口語에서도 ‘Y-로 되다’ 구성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국제고려학회와 SOAS 런던대학이 주최한 제8차 코리아학 국제학술 토론회(2007년 8월 15일~17일, 런던)에서 문영호 교수를 비롯한 북한학자들과 장흥권 교수를 위시한 중국 조선족학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24) 한 심사자가 (30나)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다. 아울러 ‘영희는 아주 부자는 아니다’에 대해서 ‘영희는 부자는 아주 아니다’가 대응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의 ‘아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물어오셨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철수는 부자-로/가 아주 되었다’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모르겠거니와 (그래서인지) 非文法的인 혹은 용인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희는 부자는 아주 아니다’도 좀 어색하며, 해석이 가능하다면, 영희가 ‘부자가 아닌’ 데에 정도차의 등급을 매겨 그 등급이 극에 위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영희는 아주 부자는 아니다’에서 ‘아주’는 ‘부자- $\Phi_1$ ’만을 수식 범위로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0) 가. 철수는 아주 부자로 되었다.  
나. \*철수는 부자로 아주 되었다.

'아주'에 의해 수식되는 것은 [[아주 [부자- $\Phi_1$ ]- $\Phi_2$ /가] 되었다]와 [[아주 [부자-로]- $\Phi_2$ /는] 되었다]로서 그 層位가 같다.

#### IV. 結 論

우리는 지금까지 '이다' 관련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던 '아니다'의 內的 構造에 대해서, '아니다'는 共時的으로 '안+이다'로 分析 可能 함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이다'는 用言의 地位 정확히는 機能動詞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의 일반적인 否定文 生成 體系에 符合한다. 이 점을 認定한다면, '이다'는 결코 (동사적) 접사나 주격조사가 될 수 없는 것이 自明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이다 구성에서 程度副詞의 修飾이 統辭的으로 'Y-이다' 구성 全體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Y'成分 - 정확히는 [Y- $\Phi_1$ ]-에 局限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다'는 통사적 단위, 즉 機能動詞로서의 행태를 보인다는 점과 'Y-이다' 구성은 用言 派生의 形態論的 構成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統辭的 構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確認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다' 구성으로만 제한되어 나타나는 先行 要素들 - '가관이다', '일쑤이다' 등등 - 은 合成用言의 語彙化 lexicalization 로 설명되는 것이 妥當함을 豫想할 수 있다.

#### ◇ 參 考 文 獻 ◇

##### 1. 資 料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이기문·임홍빈(2002), 『동아 참 국어사전』, 두산동아.  
한글학회(1998),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어문각.

## 2. 論 著

- 고창수(2007), 『한국어의 접사 체계』, 한성대학교출판부.
- 김동식(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pp.452~466.
- 김의수(2002), 「‘이다’ 제론」, 〈형태론〉 4-2, 어학전문학술지, pp.349~356.
- 김정대(2006), 「현대 국어 계사 구성의 특이성과 그 이유: ‘아’의 기원형 \*일-’ 설정과 관련하여」, 『이병근선생 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pp.509~531.
- 김정아(2001),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국어학회, pp.309~336.
- 남길임(2004), 『현대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남풍현(1976), 「國語 否定法の 發達」,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pp.55~82.
- 목정수(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pp.245~290.
- \_\_\_\_\_(2003),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_\_\_\_\_(2006가), “A Continuity of Adjectives in Korean: from a prototypical perspective”, 〈언어학〉 45, 한국언어학회, pp.87~111.
- \_\_\_\_\_(2006나), 「韓國語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正體性: 기능동사 擁護論」,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55~81.
- 박소영(2003),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121~205.
- 박철우(2006),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pp.235~263.
- 서정목(1993), 「계사 구문과 그 부정문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

사, pp.488~506.

서태룡(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이병근선생 퇴임기념 국어 학논총』, 태학사, pp.359~389.

시정곤(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주시경연구소, pp.143~150.

\_\_\_\_\_(2005),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한국어학〉 28, 한국어학회, pp.55~80.

안병희(1959), 「중기어의 부정어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국어 국문학회, pp.72~78.

엄정호(2000), 「'-이다'의 '-이'는 조사인가」, 〈형태론〉 2-2, 어학전문학술지 pp.333~343.

양정석(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한국어학회, pp. 337~366.

우순조(2005),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세종전자사전 개발연구단, pp.61~77.

이선웅(2000), 「현대국어 '(-)이-'의 품사 분류와 자릿수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국어학논집〉 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71~92.

이 용(2003), 「석독구결에 나타난 不定詞의<sup>25)</sup> 機能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pp.249~273.

이지영(2004), 「否定副詞 '안'과 否定敍述語 '않-'의 형성」, 〈어문연구〉 1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65~186.

\_\_\_\_\_(2005), 「국어의 용언 부정문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임홍빈(2005), 「정제 밝힘의 '이다' 문제와 언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pp.5~46.

25) 否定詞의 誤記이다.

- 조은주(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pp.135~165.
- \_\_\_\_\_(2002), 「前期 中世國語의 否定法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화상(1996), 「국어 체언서술어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5), 「이디의 문법범주 제검토」, <형태론> 7-1, 어학전문학술지, pp.135~153.
- Anward, J.(2001), Parts of speech, Haspelmath, M. et al.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Bhat, D. N. S.(1999), *The Adjectival Category.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nd identif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Dixon, R. M. W. and A. Y. Aikhenvald (eds.)(2004),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Pustet, R.(2003),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Oxford University Press.
- Schachter, P.(1985), Parts-of-speech systems, Shopen, T. (ed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gel, P. and Comrie, B.(eds.)(2000),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Berlin: Mouton de Gruyter.

■ ABSTRACT

## Some Arguments for Defending 'ida' as a Support Verb

Mok, Jung-soo

So far, the literature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anida' construc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anida' should be reanalyzed as 'an+ida' or 'ani+ida'. If 'anida' did not show archaic sense or literary sense on the basis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negatives 'an' and 'ani', it would be said that it had better be analyzed as 'an+ida'. This analysis fits in with the general mechanism of the Korean negation system. Another argument for the support verb 'ida' comes from the modifying structure of degree adverbs 'aju(very)', 'ggoae(quite)', 'jeongmal(really)', etc. In the 'Y-ida' construction, the degree adverb does not make a modifying relation with 'Y-ida' itself, but with the constituent 'Y', namely 'Y- $\phi_1$ '. To modify 'Y' itself as an NP, we need an adjective or an adjectival clause(=relative clause).

In conclusion, once again, we can confirm that 'ida' is not a syntactic affix or a nominative case marker, but a support verb in Korean grammar. 'ida' is therefore such a syntactic unit(=support verb) that its combination with the preceding complement NP is a syntactic construction, resulting in a compound verb through lexicalization.

※ Key-words : article, case assignment, degree adverb, delimiter, determiner, negation, nominative case marker, support verb, support adjective, verballity.